

[홈](#) > [뉴스](#) > [지역](#) > [원주](#)

원주문화재단 이사 선임 공정성 논란

일부 탈락자 추진위원 “배점 기준 주관적·모집 공고 기간 짧아 의혹” 제기

2009년 09월 04일 (금)

박현철

원주문화재단이 공개모집한 이사진 명단이 전격 발표되면서 모집과정에서부터 심사기준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

원주문화재단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원주문화재단 이사모집 및 추천공고를 통해 응모한 24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원주시청과 카나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날 문화예술계 4명, 사회경제계 4명 등 모두 8명의 이사진 명단이 발표되자 일부 탈락자와 추진위원들은 “응모서류의 적정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향상 가능성 등 5개로 구분된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이 공정성과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락자 A씨는 “직무수행능력 향상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응모서류와 이력서 2장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배점방식일 뿐 아니라 변별력도 없다” 며 “항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이력과 공적을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객관적인 점수를 산출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 추진위원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서류전형 배점항목을 사전에 추진위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지난 1일 서류전형 심사 당일 내놓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퇴했다” 며 “객관성이 떨어진 배점항목 때문에 탈락한 응모자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있으나 해명할 명분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게다가 추진위는 이사모집 및 추천공고 기간을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로 짧게 정했을 뿐 아니라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는 3일이 경과한 지난달 27일부터 모집공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문화재단사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특정인사를 염두해 둔 요식행위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서류전형 배점항목은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하는 전형표를 활용했으며 사전에 추진위원장과 항목의 적정성을 협의하는 등 심사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면서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시정에 관한 공고만 할 뿐 원주문화재단 이사모집은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위 소관이기때문에 카나비 홈페이지에만 올렸다”고 해명했다. 원주/박현철